

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이다.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세가지면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일성, 절대성, 완전성을 뒷받침해준다. 고전15:14-19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적어도 세가지가 거짓말이 된다고 했다(우리의 믿음, 우리의 전도, 우리의 영원한 미래).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.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,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.

1.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적어도 세가지 증거를 붙잡고,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

너무 많은 신자들이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다. 그래서 신자들이 늘 염려, 걱정, 불안, 두려움에 빠져 있다.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우울증, 공황장애, 자살충동에까지 사로잡히는 것이다.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가는 이유다.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. 믿음의 확신은 곧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다.

- 1) **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이다.**
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릴 수 있는가? 창조하신 분이 가능하다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. 유일하신 분이시다. 그래서 그 분만 바라보라는 것이다(신6:4-5). 절대적인 분이시다. 그래서 그 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(빌4:13). 그 분은 완전하시다.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(빌1:6)
- 2) **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(롬1:4).**
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가? 그래서 그 분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. 그리고 오직 그 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(행4:12)
더 중요한 것이 있다. 그래서 그 분만이 첫 인생 아담을 무너뜨리고, 지금도 계속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(요일3:8). 아담이후 마귀는 분명히 세상에서 영적인 도적질을 하고 있다(요10:10). 우리 개인과 가정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게 하고, 상처받게 하고, 병들게 하고, 계속 실패하는 일을 만들고 있다. 그 흑암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.
- 3) **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증거이다.**
우리가 지난 3주간 언약의 사람,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, 언약 전달자의 행복과 축복에 대해 붙잡았다.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오셨고, 약속대로 죽으셨고, 약속대로 부활하셨고, 약속대로 다 끝낸 것이다.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. 그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(행1:11). 그때까지 늘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.

2. 부활은 우리가 적어도 세가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언약이다.

- 1) **부활은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.**
 - ① **50 첫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였다고 했다. 그에게서 받은 것은 원죄라는 저주다(롬5:12)**
반대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요,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.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.
그것을 영적 생명,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고, 내 생명 안에 성령이 함께 한 상태를 의미한다(요3:5, 고전3:16)
 - ② **우리가 그 분과 함께 하는 생명이요, 인생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.**
어떤 저주와 실패 속에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갖는 순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(고후5:17)
내 능력과 열심 아니다. 내가 그 분을 붙잡고, 바라보는 데 내 안에 그 분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.
어떤 상처와 고통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다.
이 답이 없으면 상처 받고, 트라우마 가진 만큼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영적 문제가 된다.
죽을 것 같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 없다.
그래서 55절에 “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,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?”고 한 것이다.
결국 우리는 승리하고, 모든 것은 나 같은 사람, 세상을 살리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.
 - 2) **부활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.**
 - ① **이전에 우리는 12제자들처럼 나 하나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인생이었다. 그것이 관심이었고, 성공이었다.**
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정도가 아니다. 사람을 살리는 여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(마4:19)
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(마28:18-20, 막16:15-20)
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세계를 살리는 자들이 된 것이다.
 - ② **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,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.**
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, 그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건 제자가 된다.
자기 민족 정도가 아니다. 이방인들과 각 나라의 왕들과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.
 - ③ **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셨나?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으라는 것이다. 그들이 전도자다.**
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정말로 전도를 위해 기도하던 전도자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것이다(행9:11)
우리가 정말 전도자로, 제자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그런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(절대 제자).
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(절대 현장). 하나님이 축복하시고, 성령이 역사하실 수 밖에 없는 팀이 세워지는 것이다(절대 시스템).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.
- 3) **부활은 영원한 그 날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.**
 - ① **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인생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(요5:28-29)**
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다. 죄가 많아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다. 죄은 죄를 해결해주는 길을 열어주었는데, 거부한 것이다. 그러면 할 수 없다. 자기 스스로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.
믿는 우리는 그 분이 받은 저주로 모든 형벌에서 해방 받았고, 이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.
 - ② **이제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라는 것이다(56절)**
우리의 믿음,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.
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놓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가?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.
왜 이것이 가능한가? 그 분이 부활하셔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다(요11:25)

결론-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유일하고, 절대적이고, 완전하신 분이시다.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는가? 어떤 상처와 절망이 있는가? 새로 시작할 수 있다.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, 세가지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한다.